⑤ 자원봉사 활동기

A+보다 값진 일주일

김 예 린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 10기 자원봉사자
dandy-rin@hanmail.net

'전국도서관대회… 도서관…? 대회…? 어떤 도서관이 잘났는지 1등, 2등 가리는 건가?'

코웃음부터 나오는 무식한 소리지만, 전국도서관대회라는 행사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나의 반응이었다. 자원봉사를 추천하시는 교수님의 말을 들은 주변 친구들의 반응도 매 한가지였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전국도서관대회가 어떤 건지도 잘 알지 못했지만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것이 나에게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생전 처음 가보는 전라남도 광주, 전국에서 모인 낯선 21명 학생들과의 10월 6일(월) 부터 10일(금)까지 무려 4박 5일간의 합숙, 시험을 바로 앞두고 진행되는 일정 등은 선뜻 자원봉사활동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무슨 생각에서인지 걱정보다는 이미 내가 봉사자로 확정이 된 것 마냥 더 기대하고 들뜨게 했다.

이런 주제 넘는 확신과 기대의 힘이었는지, 선착순에 밀려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자원봉사 지원자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는 운 좋게도 이렇게 전국도서관대회와 인연의 끈을 맺게 되었다.

 # Episode 1.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처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의 로비. 3시까지 전국에서 오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이기로 했던 장소이다. 봉사자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저기… 자원봉사……?"

참 어색한 표정과 말투였지만 같은 목적으로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한 유대감이었는지 낯설기는 커녕 어서 빨리 친해지고 싶은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끼리의 어색한 짧은 인사가 끝나고 한국도서관협회 선생님들과의 새로운 만남이 이어졌다. 행사를 위해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먼저 일선에 나가 있는 선배와 그 뒤를 배워나가고

자 하는 후배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니 낯설기만 할 것 같은 처음의 만남이 오히려 친근하고 기분 좋은 시작으로 다가왔다.

 # Episode 2. 뿌듯함

첫 날 오후에 시작된 참가자배포용 자료 준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리의 임무에 들어갔다. 약 2,000여명의 참가자들이 받게 될 자료 준비를 하루 저녁에 뚝딱 끝내버렸던 봉사자들의 모습은 앞으로 시작될 더 많은 업무들도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만큼 든든했다.

다음날부터는 참가자명찰을 준비하고, 회의장, 참가등록대, 물품보관소, 자료교환소, 전시장 등 각자 맡은 구역과 역할에 대한 훈련이 이어졌다. 힘들다고 불평하며 서로 일을 떠밀거나 빼질거리는 모습들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하나같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려는 모습들이 지금 생각하면 서로에게 더욱 힘이 되고 격려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귤색의 자원봉사자 명찰을 달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에서 사명감과 비장함이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10월 8일, 드디어 대회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KLA가 찍힌 같은 옷을 입은 우리 봉사자들은 점심 먹을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쁠 거라는 말에 살짝 긴장한 듯 보였다.

나는 참가등록대 담당이었다. 참가번호 1,000번 대와 지구별협의회 회원들의 참가등록을 맡게 되었다. 한꺼번에 밀려오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확인하고 명찰을 나눠주며 자료교환소를 안내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차곡차곡 쌓여가는 참가등록증과 조금씩 줄어드는 명찰들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함을 느꼈는지 모른다. 하지만 뭐라해도 등록대 업무의 가장 큰 매력은 일선에 있는 수많은 선배님들과의 가까운 대면이었다. 한국도서관협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도서관계의 주요 인사들과 책에서 이름만 봤던 교수님들을 직접 뵙고 인사할 수 있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또 여러 도서관에서 오신 사서 선생님들을 뵈면서 '나도 나중에는 참가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봉사자들을 대면할 때가 있겠지!' 하는 생각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다.

10월 9일, 본격적인 세미나와 회의들이 시작되었다. "선진일류국가시대, 도서관의 비전과 과제" 라는 주제로 다양한 발표들이 이어졌다. 다소 어려운 주제들도 있었지만 교과서에서 줄줄 읽기만 했던 내용들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직접적인 사례와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도서관의 상황들을 알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회의실을 마무리 하는 일을 끝으로 도서관대회의 모든 일정을 정리했다.

무엇보다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가 이곳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체력과 시간을 소비하는 것 보다 내가 내어놓은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많이 배워간다는 것들을 느낄 때였다.

전국도서관대회, 살아있는 현장에서의 수업을 통해서 내 안에 추상적이고 막연했던 도서관과 사서직의 비전들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Episode 3. 情

4박5일 동안의 가장 귀한 선물 10기 자원봉사자 친구들. 그리고 협회의 선생님들.

사람들끼리 깊은 정을 나누기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같은 울타리 안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를 10년지기 친구들 마냥 그립게 만들었다. 각자 멀리도 떨어진 곳에서 와서 짧은 기간 만났지만 같은 생각을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뒹굴며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주가 되게 하였다. 아쉬운 헤어짐을 뒤로 하고, 다시 만날 것을 거듭 거듭 약속하고 다짐하며 이런 귀한 인연에 감사하였다.

"다들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요~! ^~^"

광주에서의 일주일이 마치 꿈같이 지나가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니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다. 공부할 시간은 부족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신있게 시험을 치루었다.

내가 보낸 광주에서의 일주일은 A+성적 보다 값진 경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